

남북전쟁을 막고 있는 구세주

미국의 아프간 철수작전

20년을 끌어온 아프간 사태가 8월 30일 드디어 끝났다. 9.11 테러를 일으킨 오사마 빈 라덴의 알카에다를 소탕하기 위하여 미국이 2001년 아프간을 점령한 이후 친미 아프간정권을 설립하기 위하여 20년 동안 2000조에서 3000조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었지만 결국은 실패로 끝났다. 트럼프 정권의 탈레반과의 평화협상(Doha 평화협정)을 이어받은 바이든 정부는 예정대로 미군의 철수를 집행하면서 아프간정부가 탈레반과의 전쟁에 적어도 수개월 버틸 거라는 예상과 전혀 다르게 탈레반은 순식간에 아프간의 수도 카불을 점령하였다. 이 바람에 미국은 황급한 철수작전을 전개하였는데 탈레반 정권의 공포정치를 두려워하는 아프간인들이 자국을 탈출하려는 행렬이 카불 공항으로 미어터지는 가운데 그 혼란한 틈을 노리고 ISIS-K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집단은 카불공항에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켜 미군 13명을 포함한 170여 명이 사망하는 비극을 낳았다.

전쟁을 막는 게 구세주의 뜻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아프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가운데 철수를 마무리한 바이든에 대하여 공화당에서는 탄핵 목소리가 지나고 있다. 유럽과 미국 등 자국을 탈출하고 싶은 아프간인들로 말미암아 앞으로 대두할 난민 문제가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사항이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다. 탈레반 통치하의 아프간인들의 미래가 불확실한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인들은 측은한 마음을 가진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도 70년 전 남북이 갈려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최소한 250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비극을 겪었으니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끼는 건 어찌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일 것이다. 전쟁은 국



카불공항에서 자살폭탄테러로 170여 명의 사상자 발생 후 병원으로 이송되는 부상자(뉴욕타임즈)

민들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을 박살낸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전쟁만은 피해야 하며, 인류를 구원하려는 구세주의 뜻도 전쟁을 막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공산주의 이념을 몰아낸 구세주

구세주께서는 공산주의를 하나님 역사의 최대의 장애물로 생각하셨고, 그 결과 공산주의를 이 세상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지상과제로 생각하여 실행에 옮기셨다. 또한 우리나라에 다시는 6.25와 같은 남북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영적 작업을 하셨다. 구세주께서 분신(分身)의 역사를 통하여 공산주의와 남북전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과정을 알아보자.

첫째,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렸다. 공산국가의 중주국인 소련으로부터 정신적 물질적 후원을 끊어버려야 북한이 망명되게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산주의가 전 세계 국가의 반 이상을 차지했을 때, 그러니까 1981년경에 구세주께서는 세계공산주의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셨다. 그것도 겨우 몇 백 명의 신도들 앞에서만였다. 그러자 대부분의 신도들

은 믿지 않았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공산주의 소멸 공약 10년 후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된 후 개혁을 시작하면서 동구권 국가들, 헝가리 폴란드 동독에서 공산주의국가에서 민주국가로 전향이 일어났던 것이다. 74년간 구가하던 마르크스·레닌이즘이 순식간에 인류의 뇌리에서 사라지게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구세주의 공약대로 사람 속에 내재한 공산주의 이념을 분신의 역사로서 제거하셨던 것이다. 공산주의 사상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다. 이데올로기란 사람의 영이자 마음이다. 사람 속에 도사리고 있는 공산주의 영을 없앨 수 있는 존재는 마귀를 이기고 완성자가 되신 구세주 이외에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이다. 사람의 재주나 제도적 해결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사람이 공산주의 이념이라는 영을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남북전쟁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둘째, 구세주는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을 하도록 영적으로 조종하였다. 구세주는 공산주의를 소멸시킨 후 김일성 북한

주석을 영적으로 압박하여 유엔 가입 신청을 먼저 하게 하였다. 이에 대한 내용이 두산백과(네이버)에 실려 있다.

“1991년 유엔총회는 개막식에 이어 남북한 등 모두 7개국의 유엔 가입 결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표결 없이 159개 전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이들 국가의 가입을 승인하였다. 분단 46년, 유엔 창설 46년 만에 남북한은 각기 독립된 국가의 자격으로 유엔 회원국이 되었던 것이다.

남북 당국은 본래 유엔 가입에 대해 커다란 입장 차이를 보였다. 국가만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유엔의 조건에 맞추어 한국은 한반도의 유일 합법 정부라는 논리를 좇아 단독으로라도 유엔 가입을 추진했고, 북한은 동시 가입이 분단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라며 단독 가입이 아닌 한 유엔 가입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단독 가입은 국제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 한국이 남북의 유엔 가입 문제에 대해 북한측 입장을 지지했던 소련, 중국 등과의 외교 관계를 확대하여 그들의 지지를 끌어내고, 비동맹국들의 협조를 얻어 유엔 가입이 확실해지자, 국제관계에서의 고립을 우려한 북한도 태도를 바꾸어 동시 가입으로 입장을 선회함으로써 남북한 동시 가입이 실현되었다.”[네이버지식백과]

이처럼 이 세상은 구세주께서 영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전쟁은 결코 일어날 수 없다. 절대 전쟁이 못 일어나게 하겠다고 하신 공약이 지켜질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은 비극이자 재앙이다. 수많은 무고한 인생들을 죽음과 폭력으로 내모는 마귀의 강력한 죽음의 무기이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호의성 구세주와 승리제단의 한몸철학이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각자 맡은 바 사명을 가지고 천지공사에 힘써야 할 것이다.*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 How Exercise May Help Keep Our Memory Sharp에서 발췌 요약

하루 8시간 가량 운동하라

구세주 조희성님은 하루에 8시간은 운동을 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글자 그대로 걷거나 런닝 같은 운동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8시간 정도는 액티브한 활동을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장수자들은 공동이를 땅에 붙일 시간 없이 부지런히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무병 장수를 원한다면 쉴새 없이 움직이며 운동을 하라.*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214>

“자유율법을 지키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자유율법을 지키고 산다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도 이 세상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최고의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남을 도와주는 희생적인 마음이 움직이는 고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자는 이 세상에서도 잘살게 되는 것이다. 남을 도와주다

보면 그 가운데 크게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나를 항상 버리고 나를 짓이기고 나를 죽이는 생활이 곧 자유율법을 지키는 생활이다. 나의 몸과 마음과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는 일념으로 움직여져야 마귀를 이긴 것이다.*

발행인 칼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올해 추석연휴는 9.18부터 22일까지 5일간이다.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작년과 마찬가지로 고향에 내려가지 않고 홀로 연휴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예상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차례를 지내기 위해 고향을 찾아갈 것이다. 그들은 친척과 일가 권속들이 묵은 회포를 나누며 돌아가신 조상들께 제사나 추도식을 올리면서 망자(亡者)를 그리워할 것이다.

그런데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연휴 때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뉴스를 보면서 으레 그런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한다. 아무래도 명절날 민족대 이동이 있다보니까 교통량이 많은 것에 그 이유를 둘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영의 세계에 무지한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판단이다.

명절날 죽은자의 영이 활개친다

명절날 사람이 많이 죽는 이유를 알려면 제일 먼저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사람은 물질인가, 신인가? 지면관계 상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람은 신이다(자세한 내용은 승리진경, 새말씀

에도 말이다. 사람의 죽음은 마귀의 영에게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는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하나님의 영이 사망의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제로가 되어 오직 마귀의 영만 100% 있게 된다.

설날이나 추석날 한국인들은 죽은 조상들을 생각하며 제사를 지내거나, 추도식을 올리면서 망자(亡者)를 그리워한다. 그때 죽은 사람들의 영이 활개를 치기 시작한다. 죽은 사람들의 영에는 그 사람을 죽게 만든 사자귀신이 붙어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는 순간 그 사자귀신이 그 사람들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자귀신이 운전자로 하여금 헛것이 보이게 하거나 졸음을 일으켜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다. 명절날 들어온 사자귀신이 명절 당일 아무런 해코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병마를 일으킨다든지 하여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 사자귀신은 사람에게 가장 해가 되는 원수마귀인 것이다.

박멸소탕기도로 사자마귀 물리치자

그렇다면 명절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명절날 사자귀신의 발동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이 없다. 따라서 우리 승리제단 식구들은 사자귀신을 죽이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한다. 사자귀신을 죽일 수 있는 영은 오직 이기신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마귀를 박멸소탕하는 기도를 끊이지 않고 하여야 한다.

또한 명절날은 사자귀신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날뛰는 때임을 인식하고 나들이를 삼가는 것이 좋다. 부득이 이기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명절 모임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그들과 어울리지 마음 중심으로 이기신 하나님만을 사모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를 더욱 열심히 하여야 한다.

이 길은 영생의 길이다. 현재의 생활 풍속은 다 죽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그것을 따르면 죽음에 가까워질 것이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처럼 현사류를 거스르는 반대생활을 해야 영생이 보장될 것이다.*

구세주의 말씀은 이제 그대로 모두 이루어진다
인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5대공약을 했고 현재까지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말길으로 승리하라!

운동은 뇌를 건강하게 한다

운동이 뇌를 건강하게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운동은 뇌의 기억 중추에 새로운 뉴런의 생성을 촉진하고, 새로운 세포를 생존·발달시켜 뇌 신경망에 통합되도록 돕는다. 그래서 활동적인 사람들이 운동을 게을리하는 사람들보다 알츠하이머병이나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훨씬 낮다.

치매와 알츠하이머에도 유익한 운동

뉴욕타임즈 8월 25일자 기사에 의하면, 하버드 대학교 스피겔만(Spiegelman) 교수와 크리스티안(Christiane D. Wrann) 교

수가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아이리신(Irisin)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어 뇌로 이동하여 치매나 알츠하이머 환자일지라도 뇌신경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들은 아이리신을 생성할 수 없는 쥐와 정상적인 쥐를 러닝머신에서 운동을 시킨 후 기억 및 학습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아이리신을 생성 못하는 쥐는 인지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발견한 후 아이리신 호르몬이 사고력 향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아이리신이 인지와 운동을 연결하는 핵심 호르몬임을 밝혀낸 것이 그 연구의 주요 내용이다. 요약해서 말하자면 아이리신 생성을 돕는 물질을 주입하였을 때 정상적인 쥐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가 진행된 쥐도 기억력과 학습능력 테스트에서 좋은 결과를 내더라는 것이다. 또한 치매의 원인 중의 하나인 신경염을 일으키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발견하였다.

그들은 아이리신은 약의 형태로 제작될 수 있을 거라며 앞으로 치매 및 알츠하이머병을 개선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 뉴욕타임즈 8.25 기사 『운동이

구세주
예배
말씀집

구세주
예배
말씀집

3

구세주
예배
말씀집

4

신간서적
승리제단 식구들

5

2001년 2월
<한정판 인쇄 소장본>
A4사이즈 / 277쪽 / 큰 본문글씨

▶ 구세주 예배 말씀집 5집 펴본

▶ 주님께서 제일 원하셨던 설교 말씀 그대로 편집한 책 출판

▶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구세주의 말씀

▶ 영생은 오직 구세주의 소유물, 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결코 영생 얻을 수 없어

| 승리신문 제작 |

말씀 독취 작업에 수고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